

열점

미국 대선 정(正)과 사(邪)의 대결

중국 네티즈 [網易]는 대선 전에 ‘2020 미국 대선은 궁중 암투극이 아닌 가치관의 전쟁이며 정(正)과 사(邪) 최후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는 예리하게 미국 주류매체에서 ‘가짜뉴스’가 난무하며 민주당의 대마초 합법화, 남녀 화장실 공용, 동성애, 낙태 등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후보 바이든 아들의 ‘노트북 (硬盘门) 사건’은 미국 건국 이래 최대 부패사건이며 성추행과 마약, 고위층 탐오 혐의도 들어 있다”, “‘노트북 사건’에서 최대 패배자는 바이든 외에 전통매체다. 왜냐하면 어떤 주류매체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좌익 (左翼) 민주당은 거짓말이 지나치면 진리가 되고, 매체를 얻은 자가 세상을 얻으며, 투표한 자가 아니라 투표지를 세는 자의 뜻대로 된다는

공산당의 강패 패권 논리를 계승했다. 미국 주류매체는 좌파, 심지어는 사회주의 방향으로 향한 단체로 타락했고, 국민 (특히 젊은이)의 종교신앙과 가정윤리, 사회도덕에 큰 상처를 남겼다.

평민을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은 미국의 전통가치를 대표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훈인과 가정윤리를 제창하며, 근로와 자급자족을 제창하기에 정부 복지를 얻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시비가 분명해 범법자에 대해 회색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이 글에서는 2020 미국 대선은 “이미 황당한 ‘궁중 암투극’이 아니라 가치관의 성전 (聖戰)과 정과 사의 대결로, 국운이 달린 분수령이자 미래 세계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글은 5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중공이 매우 빨리 삭제했으나 위챗 계정에서 여전히 떠돌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 반박해대 행진 개최, 민중들 지지

[밍후이왕]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캐나다 퀘벡 파룬궁수련생은 몬트리올시중심에서 기세 드높은 반박해와 ‘삼퇴’를 성원하는 대 행진을 거행했다. 도중에서 민중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열고 호호탕탕한 현수막 진영, 항의전시판, 진상차대로 구성된 대행진 대오는 번화가를 건너 종점인 당인가 (唐人街)에 도착했는데 전반 행진의 코스는 4공리였다.

대오가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자 한쪽 한쪽의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구성된 현수막이 사람들 앞에 펼쳐졌다. ‘3억 6천만 중국인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의 탈퇴를 경축한다’ ‘생체 장기 적출을 정지하자’ ‘파룬궁박해를 정지하자’ ‘천멸중공 (天滅中共)’ 등이다. 현수막, 전시판, 차대가 한갈래 거대한 진상대오로 형성되어 ‘북미

작은 파리’로 불리는 이 도시에 나타났다. 길역, 차안, 슈퍼안의 사람들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V자 손자세를 하는가 하면, 기쁘게 “화이팅”하며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행열에 들어와 함께 걷는 사람도 있었다.

파룬궁수련생 하라스 존은 길에서 민중들의 서명을 받으며 캐나다정부로부터 ‘마그니츠키 법안’으로 파룬궁박해 주요 책임자인 중공의 고위관원을 제재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맞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무슨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제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행진 대오의 출발점에서 리사 (Lisa)는 서명을 받고있는 하라스를 만났다. 리사는 중국에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고대 문화가 있 (뒷면에 계속)

■ 옛일을 거울로 삼아 ■

삼대의 덕이 일가족을 전염 병에서 구하다

송나라 인종 시대에 발생한 일이다. 당시 절강(浙江) 진운(縉云) 사람 관사인(管師仁)은 유생이 었다. 그는 설날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키가 크고 불길한 표정의 귀신들만 보였다. 관사인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귀신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전염병 귀신이고, 설날에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러 왔다.” 관사인이 물었다. “전염병이 우리 가족에게도 미치는가?” 귀신은 아니라고 말했다.

놀란 관사인은 귀신에게 전염병을 피할 방법을 물었다. “우리는 삼대에 걸쳐서 덕과 선행을 행한 가족에게는 가지 않는다. 그들은 전염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귀신이 말했다. 실제로 관사인 가족 삼대는 많은 선행을 했다.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면 막으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칭찬했다. 그 결과 전염병이 그해 이 지역을 황폐화했을 때 관사인 가족은 건강했고 안전했다.

역사는 미래 세대에게 남겨진 소중한 지혜이다. 고대부터 사회가 퇴폐하고 높은 도덕성이 보이지 않을 때 종종 전염병이 발생했다.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일 수 있다. 전염병에 직면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제거하고, 서로 돕고, 높은 표준과 선행으로 회귀해야 한다. 전염병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보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덕과 선행을 바탕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

애국주의는 교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애국주의는 교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가 실제로 백성을 위해 일을 처리하여 사람들은 신체상 감수를 받는 중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제 2차 대전때 나치 독일이 영국을 습격할때 영국의 황가공군은 시급히 비행장을 크게 건설해야 했는데 한 “알박기(釘子戶)”는 이곳을 떠나기 아쉬워 무릇 군대에서 얼마를 보상해 줘도 집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내각성원은 열받아 진짜 말이 안통하면 강제로 허물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총리 처칠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총리의 직무는 바로 강권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며 인민에게 자유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제 2차 대전후 처칠이 소속된 보수당은 떨어졌다. 스탈린(斯大林)은 조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인민을 위해 전쟁에서 이겼으나 인민은 오히려 당신을 파면시켰어요. 나를 보세요. 누가 감히 나를 파면할까요?” 처칠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전쟁을 하면서 지켜준 것이 바로 인민이 나를 파면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1951년 처칠은 또다시 총리로 당선됐다.

금년 전염병이 대대적으로 폭발하고 의료자원이 긴장된 시각에도 독일정부는 우선 고려한 것은 국내의 압력이 아니라 (그들은 5주시간을 이용해 1000여개 항공반을 출동시켜 약 24만명의 공중철퇴행동을 완성하여) 세계각지에 널려있는 독일 공민 혹은 외국여권을 지닌 독일의 영주국민을 독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앞면의 계속) 하지만 그러나 중공이 자국민의 인권을 부단히 박해하는 점에대해서는 그도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면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중공 고위관원의 제재를 요구하는 청원서(請愿书)에 통과하게 서명했다. 그녀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죄행을 들을때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악한 일이 있음은 상상조차 어렵다면서 “이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생에게 경의를 표시하면서 “당신들(파룬궁수련생)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전 세계는 모두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대오에서 ‘전민은 각성하여 중공을 해체시키자’의 현수막을 든 파룬궁수련생 고수빈(高樹斌) 여사는 오늘 대행진에 참가한 목적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아름다움과 또한 공산당이 이

몇년래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한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고수빈여사는 파룬궁수련 때문에 중공에 의해 억울하게 2년 감옥살이를 했으며 또한 사악하기로 이름난 마산가(馬三家) 노교소에서 고문구타를 당했다. 그는 간고한 경력을 거쳐 연합국 인도구원을 받아 퀘벡에 왔다. 그는 서방사회의 인사들이 공산당이 세계에 가져다 준 재난을 인식하고 중공을 멀리해 평안을 보전할 것을 희망했다.

독일 매체 : 중국에서는 노동교양, 뤼넨에서는 행복을 찾다



[민후이왕] 독일 서부 뤼넨시에서 2020년 10월에 '국제 문화의 주(週)' 행사가 열렸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선보인 금색 중국 용은 행사에서 가장 빛나는 포인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염병 기간의 번민을 떨쳐내게 했다. 당시 최대 일간지 <루르 짜이퉁>은 이 도시에 상서로운 용을 데려온 뤼넨의 파룬궁 수련생 귀쥘핑(郭居峰)을 인터뷰했다. 기사 제목은 '중국에서는 노동교양, 뤼넨시에서는 행복을 찾다' 였다.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노동교양소에 수감되다**

황금의 10월, 독일 서부 뤼넨시 국제 문화의 주 행사장에 금색의 상서로운 용 한 마리가 번쩍이며 등장해 현장에 있던 독일인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도시에 중국 바람을 불어넣었다.

<루르 짜이퉁>은 국제 문화의 주 행사장에서 춤추는 용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또 독일에서 12년 동안 거주한 귀쥘핑이 용의 배후에 숨은 용인(龍人)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8000km 떨어진 중국 동북 흑룡강 출신인데, 문화혁명 후기에 태어났지만, 성장 후에는 사회와 아무래도 맞지 않았다. '루르 짜이퉁'은 이어서 귀 씨가 파룬궁을 배우고 박해당한 과정을 소개했다. 귀 씨는 1995년에 가부좌하는 기공의 일종인 파룬궁을 배웠는데, 타 기공과 다른 점은 모든 파룬궁 수련생이 진선인(真·善·忍)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9년 중국공에 의해 파룬궁이 금지된 가운데 수

천 명을 헤아리는 수련생이 납치당해 노동교양소에 수감됐고, 그 속에 귀쥘핑이 있었다. 그는 세계 노동교양소에서 환경이 악렬한 석재 공장에서 강제 노동했다. 귀 씨는 "우리는 두 손과 망치로 일했는데, 장갑이 금방 망가졌습니다."고 말했다.

2008년,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때, 귀 씨는 중국에 있는 독일 회사에서 일했고, 독일에 출장 나뉘다가 돌아가지 않았다. 현재 그는 한 독일 회사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여가에 그는 중국 문화에 심취하며, 가끔은 독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글로 써서 독일의 중국어 신문에 기고한다. 그는 또 늘 자신이 요리한 고향 음식을 정성껏 꾸며 사진을 찍거나 한가한 시간에는 한자 서예를 하기도 한다.

용춤 연습이 새로운 취미가 되다

<루르 짜이퉁>은 귀 씨가 용춤 순서를 짜는 과정을 소개했다. 귀 씨는 말했다. "우리 중국인에게 용은 매우 특별하며, 일종의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는 용춤을 깊이 연구했고, 국제 문화의 주 관객에게 용을 선보였다. 귀 씨는 말했다. "제가 훈련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추어 영상 교재를 만들어 각 팀원과 동작에 대해 번호를 매긴 다음, 우리들은 심층 학습과 훈련을 했습니다."

무용팀원의 나이는 27세에서 72세까지이고, 네 사람은 뤼넨시에 있다. 그는 "저는 현장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저의 목적은 용을 통해 뤼넨시에 행운을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공연 현장에 무지개가 나타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귀 씨의 적극적인 생활 태도와 사심 없이 사회를 위해 일체를 감당하는 자세다. 그는 "저는 정말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와 함께 매주 일요일에 리페공원에서 연공을 한다. 물론 그에게도 조금 마음 아픈 것이 있는데, 바로 그가 12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 파룬궁 서적에서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 혹은 자살, 분신자살을 하지 않는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중공대표는 한 마디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알고있나요?

연변 박해 진상

연길시 공안국은 사회구역인원과 결탁해 추이첸메이(崔群美)와 소메이어(邵美娥)를 소란하다

11월 1일 아침, 연길시 공안국은 사회구역인원과 결탁해 추이첸메이와 소메이어를 소란했다. (금년 2월 20일, 2명은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는중 택배배달원에게 고발당해 진학파출소와 국보대대에 납치되어 당일 풀려났지만 당시 그들은 이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그들은 그때일을 핑계삼아 수련생더러 다녀가라고 소란하고 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들을 찾았다.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를 믿어 생명을 잇아가는 큰 재난에서 목숨을 건지다

나의 친척에게 일어난 실화를 말하겠다. 친척은 예전에 목숨을 잇아가는 대재난을 여러 차례나 겪었다. 그가 대법진상을 알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었기에 위험에서 벗어났고 목숨을 건졌다.

1 4층 건물에서 떨어졌지만 별 탈없이 무사했다

친척은 과일 장사를 한다. 가을에 사과가 익었을 때 늘 일부 사과를 사서 과일 보관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본지에 사과를 사러 온 상인들에게 판다. 대략 7~8년 전 겨울의 어느 날, 친척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말했다. “저는 며칠 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나는 의아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는 일의 경과를 이야기했다.

“며칠 전 외지의 한 과일 장수가 제 사과를 보러 왔어요. 저는 그와 함께 신선도를 유지하는 창고에 들어갔어요. 사과를 거의 4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곳에 보관했기에 운반기를 탔어요. 저는 송풍기에 가까운 안쪽에서 사과 상자를 밖으로 운반하려다가 그리 튼튼하지 않은 대나무 판자위에서 조심하지 않아 발을 헛디뎠는데 순식간에 송풍기 입구에서 떨어졌어요.

냉장 창고 안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제가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커다란 철제로 된 오르내리는 송풍기 호스는 손잡을 틈도 없는데 바로 바닥까지 떨어지게 돼요. 하물며 4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었죠. 4층 위의 사람들(상품을 보러 온 사람들외에 또 창고 관리원과 여러 명이 있었음)은 재빨리 승강기를 타고 1층



에 내려오며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운반기에서 송풍기 앞으로 뛰어왔을 때 그들은 제가 송풍기 주변의 철제 선반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당시 아래로 떨어질 때 저는 ‘이젠 끝장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뜻밖에도 1층까지 추락해 바닥에 거의 떨어질 무렵 도리어 갑자기 철제 선반 위의 한 쇠막대기에 옷이 걸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너무 신기합니다!’ 냉장 창고 관리원조차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디서 나온 쇠막대기지? 제가 ‘빨리 저를 내려줘요, 빨리 저를 살려줘요!’라고 외쳐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저를 구해줬어요.”

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죠? 안 다쳤죠?” 그는 “그냥 등이 굽혀 껌질이 좀 벗겨지고, 흉부가 약간 아프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라고 했다. 나는 “이는 모두 당신이 제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을 지지하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를 믿기에 받은 복이에요. 바로 대법 사부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는 바로 목숨을 잇아가려고 온 것이에요.”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아! 원래는 그런 거였군요.” 내가 말했다. “이후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외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꼭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2 삼륜차가 견인되다

4~5년 전의 설 전날, 사람들은 모두 설을 설 물건들을 준비했다. 우리 여기 마을은 모두 돈을 모아 전양탕(全羊湯)을 끓이는 것이 유행이다. 전양탕을 다 끓였으니 가져가라고 친척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큰 알루미늄 냄비를 가지고 전동 삼륜차를 타고 떠났다. 거의 도착했을 때, 어찌 된 영문인지 삼륜차는 길가의 벽돌 높이의 낮은 독을 향해 곧장 돌진해 갔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앞바퀴는 이미 독에서 떨어졌다. 당시 그는 놀라서 멍해졌다. 이때 갑자기 한 줄기 힘이 질주하는 삼륜차를 단번에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고, 삼륜차의 두 뒷바퀴는 작은 독에 단단히 걸려 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돌아와서 그는 나에게 이 신기한 일을 말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로 어떤 강력한 힘이 저의 삼륜차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차와 함께 사람 키 넘는 독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독 아래는 전부 돌이며 대부분 뾰족한 돌들이어서 떨어지면 틀림없이 리 대사님께서 저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리 대사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해 주신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